

지역 매아리



부안군 진서면 자율제설반 신속한 제설작업 주민 불편 최소화

부안군 진서면(면장 이영훈) 자율제설반이 지난 11일과 12일 대설특보가 발표되자 신속한 제설작업을 펼쳐 주민 불편 제로화에 나섰다.

이날 진서면 자율제설반은 제설인원 20명과 제설장비 13대를 동원해 새벽부터 눈이 그친 오전까지 지방도 군도 마을 안길 등 면내 주요 도로에 대한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펼쳐며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작업을 펼쳤다.

특히 자율제설반은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율방재단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폭설 시 트랙터 등을 동원해 새벽부터 지역 주요 도로와 마을 안길 등에서 제설작업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자율제설반은 또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설계예상 대책기간으로 정해 기상특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제설용 트랙터 등 13대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23개 마을 진입로와 급경사지, 취약지구 등에 상시적 관리,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한빛원자력본부, 고창소방서에 주택용소방시설 기증

고창소방서는 12일 고창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한빛원자력본부에서 기증한 주택용소방시설에 대한 기증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증 행사는 재난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지역 기업체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으며 한빛원자력본부에서 함께 기증하는 아름다운 세상' 일환으로 기증한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총 130세트로 고창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화재취약계층에 우선 보급 할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

허산규 예방안전팀장은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택 기증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내 소방 취약지역에 보급하여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역발전 활성화 '공로'

김생기 정읍시장, 올해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김생기 시장이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2017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지역발전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민선6기 동안 지역발전 활성화와 행정혁신, 시민소통 등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관련해 김시장은 열린 행정과 시민과의 밀착형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밀레니엄서울랜드 호텔에서 있었다

김시장은 민선 5.6기 시장으로 재임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국가출연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R&D 사업 기반구축에 주력했고, 이와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2015

년 7월에는 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야에 총력을 쏟아 12월 13일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투자 협약을 체결(분양율 69.2%)했고, 현재도 4개 기업이 입주 상담 중이다.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도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분양 계약(4만8245㎡, 31.2%)했고, 5개 업체가 입주 상담 중이다.

특히 자동차 전문기업인 (주)다윈시스와 관련, 공장부지 정리를 마쳤다. 철도산업 농공단지인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결함에 따라 연내 지정될 전망이다. 다윈시스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360량의 자동차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30여개 협력업체의 동반 이주를 통해 국내 최대의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윈시스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200여명의 직접 고용 등 1200여명

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차량과 부품 생산, 서비스, 유통 등에 걸친 지역생산 유발효과와 지역세수 증대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구월초 테마공원이 산림청 주관 2018년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추석연휴 기간 열린 정읍 구월초축제에는 8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80여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김시장은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이 하나 둘 결실을 거두고 있는 만큼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 '만전'

부안군 재활보건센터, 재활상담·각종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더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안군 재활보건센터 문을 열고 장애인의 재활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재활보건센터는 재활운동실,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전문 1명, 물리치료사 3명이 재활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단체와 연계해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재활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재활보건센터는 지체,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균형능력측정기 및 상·하지

운동기와 유산소 운동기 등을 이용해 재활운동(월·수·금)을 실시하고 체조 공예 레크리에이션 등 그룹 프로그램(화·목)을 운영해 장애인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군민과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캠페인, 장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방의 의의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보건센터 운영으로 재활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장애인들이 적극 각종 재활과 프로그램을 이용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보건센터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



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 진료접진팀(☎ 580-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세이브 더 칠드런 캠페인 참여

고창군이 고창군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한 아프리카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청소년수련관과 흥덕·성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 시설에서 운영됐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11월 25일까지 지역 중고생 20명이 참여했고,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등학교생 20명, 성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초·중·고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11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모자 뜨기 캠페인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살고 있는 체온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들을 위해 모자를 직접 만들어 해외사업장에 보내주는 캠페인이다.

프로그램에 함께 한 청소년들은 3주에 걸쳐 모자를 완성한 후 기관을 통해 신생아에게 전달했으며, 참여한 학

생들은 봉사시간 5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민서(고창여중 1)양은 "뜨개질은 처음이다 생각보다 어렵고 기대한 만큼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완성된 모자를 보니 뿌듯하고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 한해 청소년수련관과 흥덕·성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 수련시설에서 우리가족 영양간식 만들기 등 연인원 900여명이 참여한 17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어른들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베풀거나 도울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숙성한 구성원으로 커 나가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건설교통시책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2017년 건설교통 시책 6개 분야에 대한 14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 3개 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최우수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수상과 관련, "건설교통 분야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며 효율적인 지방 하천 유지관리와 제방 정비,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 자재 구매실적과 대중교통 정책 부문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부안 모항 해나루 호텔에서 도시군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들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대중교통 정책으로 고품격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전북대학교 링크사업단 지역산업 연계 공동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과 지역산업 연계 공동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위해 관학협력 추진하고 각 기관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발전과 우의증진, 농생명 분야, 바이오 산업분야에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학협력의 기틀을 마련하

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과 농업농촌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과 교류를 증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신성장 선도 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long with various gift set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sanmyeongju.